

계열사 직영농장 규탄 집회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양계농가 생존권 사수 외쳐



본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4일 서울역 광장에서 양계농가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닭고기 생산농가 생존권 사수 및 기업의 직영농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본회 오세을 회장을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국의 양계 생산농가의 사육주권 쟁취에 나섰다. 국내 닭고기산업은 계열사의 경쟁적인 사업 확장에 따라 육계사육마리수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일부 계열사에서는 안정적인 닭고기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직영농장 설립 가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가 사육회전수 감소와 계약조건 악화로 농장 경영난이 가중되고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양계산업불황이 계열사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육비인하, 불공정 계약 운영 등 일방적 체제를 강요하였고 결국에는 직영농장 운영을 위하여 육계농가 뿐만 아니라 종계농가의 생존권 및 사육주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양계농가들은 계열사 직영농장 건립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건립된 직영농장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닭고기 산업 희생대책을 촉구하기위해 강한 항의 의사를 표현했다. (본지 120쪽 참조)

검정위원회

일반검정심의 및 검정연구소 추진사항 보고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는 지난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닭검정연구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순계 2품종(소래 천금계, 소래 공굴 오골계), 원종계 2품종(한협 3호, 하바드)에 대한 검정심의가 있었다.

기자간담회

계열사 직영농장 설립에 따른 협회 입장 표명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열사의 대규모 직영농장 설립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로 인해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오세을 회장은 “축산계열화법이 계열사에 면죄부를 주게 되면서 정부대책이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육계의 경우 계열화가 93% 이상 진행된 가운데 계

열사가 위탁농가 이외에 직영농장을 설립하게 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열사 직영농장은 수지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농가에게 지급되는 사육비를 깎을 수 있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의 사육회전수 감소와 계약조건 악화로 농장경영난이 가중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는 이 건과 관련, 지난 4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계열사 직영농장 설립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계열화법 및 표준계약서 개정안 건의 등 집회 후속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

**종계부화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토의**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11일 천안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육계(종계부화)CEO과정 교육 추진결과 보고 계열사 직영농장 반대 집회 추진사항 보고가 있었으며 종계부화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 졌다.

**김동진 국장 한국가금학회로부터 공적상 수상
행정분야 공로 인정**



지난 13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한국가금학회 제32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본회 홍보국 김동진 국장이 2015 한국가금학회 공적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졌다.

회장동정



◀ 오세을 회장

- 11. 4 계열사 직영농장관련 반대 집회
- 11. 5 우리 농축산물 어울림한마당 직거래장터 개장식
- 11. 9 계열사 직영농장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 11.11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 11.13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16 본회 기자간담회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작업장 시상식
- 11.17 축산회관 입주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회의
- 11.19 FTA 농축산 실질적 대책 수립을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

안 내

본지는 대한양계협회 회원지로서 본회 회원의 보다 많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분들의 경조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회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화 : 070-4263-9735
팩 스 : 02-588-7655
이메일 : enani85@naver.com